

## [보도자료]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업계 최초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 도입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서브허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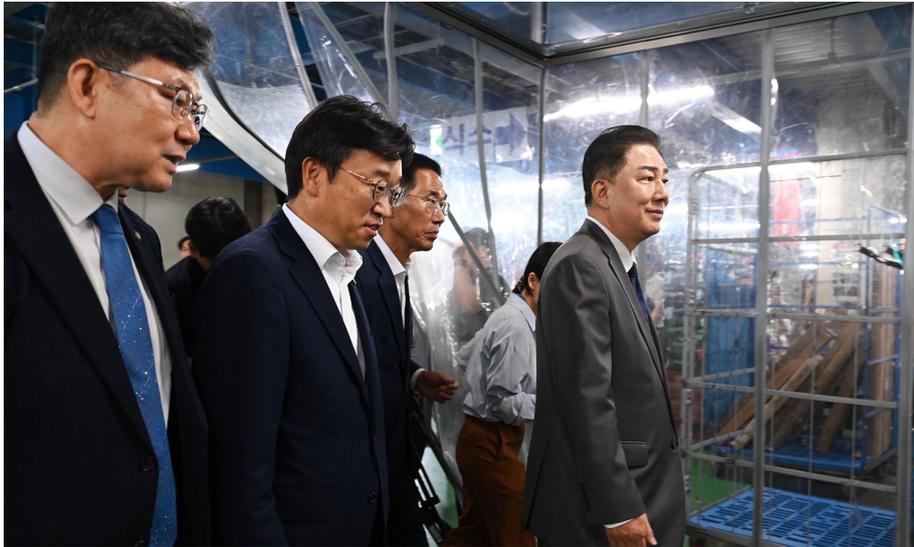
2025. 7. 16.



- 김병기 민주당 직무대행 등 양재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허브 방문
- CLS는 업계 최초로 ‘냉기 유출 방지 커튼’ 안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 도입
- 현장 돌며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 둘러봐 ”쿠팡의 변화, 타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 격려, 사회적 대화 통한 지속적인 개선도 당부

2025. 07. 16. 서울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은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폭염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을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현장 방문이다. 김 직무대행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해 물가 사항과 대책을 점검하고 인근의 양재동 CLS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양재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버허브를 방문해 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을 점검했다. 내부 온도는 20도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최대 관심사항이다. 사각지대는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직무대행 등 현장 방문단은 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등을 시찰하고 내부 온도를 확인했다.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의 온도는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민주당 의원들은 “모범적인 사례로, 쿠팡의 변화가 타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향후 지속적인 개선도 함께 당부했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수백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작업구역의 온도를 20도 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